

## 아태지역 시험인증회의

아·태지역 시험인증협력체(APLAC) 서울 회의 개최(2010.5.12~14)를 계기로 한국인정기구(KOLAS)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임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기대하였다. APLAC는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이고, KOLAS는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며, 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이번 회의에는 총 22개 국가가 참석하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G-20 국가 중 9개국 포함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국제교역에서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중복 시험 방지를 위해 개별 국가의 시험인증 성적서에 관해 상호인정(Global Acceptance)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이 실시하는 의학시험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여부 등도 심의되었다.

한편, 환경규제,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 및 의학시험 등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규제 부분에서 국제 상호인정 확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KOLAS는 신성장 동력 인정분야 확대와 이와 관련된 검사, 표준물질 분야의 MRA가입 확대 등 국제상호인정에 대한 국가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각 국가간 상호인정은 40%('02년)수준에서 68%까지 제고되었다.(ILAC 보고서, '08년). ILAC는 국제시험인증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이다. MRA는 국제상

호인정협정(Mutual-Recognition Arrangement)이다.

미국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규제대상 안전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국제상호인정분야를 이미 확대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전품목에 대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부 집행업무를 민간기구에 이관하고 정책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KOLAS 조직개편 방안 등을 이번 회의에서 발표·논의되었다. 한국인정기구 개편조직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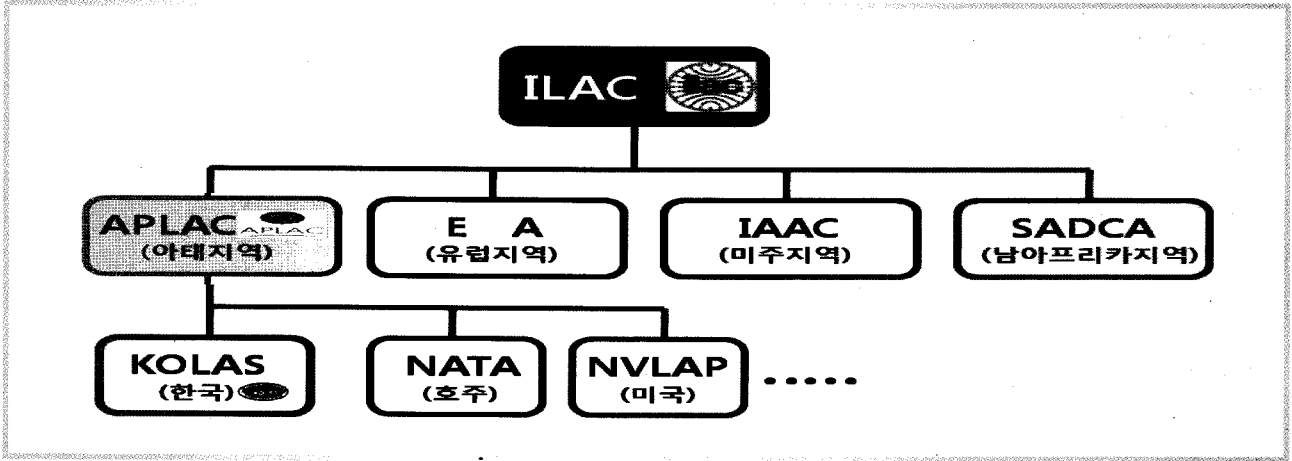
그간, KOLAS는 APLAC-MRA에 가입(2000년)한 이래 공인시험성적서가 세계 52개국에서 시험·교정분야의 추가 또는 중복시험 없이 국제교역의 패스포트로서 통용되었다.

우리기업, 특히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에 필요한 시험 기간의 단축(2개월 → 3주), 비용 절감(20~30% 수준) 및 기술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기술표준원은 국제적 신뢰성 제고, 시험장비 및 인력 인프라 확충과 상호인정 국가 및 분야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시험인증산업을 세계적 브랜드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LED, 임베디드 S/W, 방송통신 융합기술, IT융합, 헬스케어 등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 시험 인증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성장동력의 기술인프라

【 국제상호인정제도 국제조직 】



\* ILAC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를 확충하여 나아갈 예정이다.

국제상호인정제도(MRA)는 국제표준(ISO/IEC)에 따라 조직, 품질시스템(업무절차 등), 시설 및 환경 조건,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교정기관 등을 평가하여 생산하는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시험기관 성적서를 국가간에 중복 시험없이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시험·검사·교정기관 국제상호인정제도 국제기준은 ISO/IEC 17011(인정기구 자격요건),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ISO/IEC 17020(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등이다.

지역기구 및 개별인정기구 자격은 APLAC 등 지역기구와 KOLAS 등 개별인정기구는 상위 국제기구의 동등성 평가(4년 주기)를 통한 자격 검증으로 ILAC-MRA 체결 가능하다.

ILAC-MRA 체결한 정회원 국가의 인정기구로부

터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만 상호인정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ILAC-MRA는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ILAC 국제상호협정이고, ILAC-MRA 체결현황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52개국 65개 인정기구이다.

한국인정기구(KOLAS) 현황을 보면, KOLAS 조직 구성은 설립근거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이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기술표준원에 KOLAS 설치근거 규정이다.

KOLAS 운영 현황은 공인기관이 총 623개 기관이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강제법에 KOLAS 인정 의무화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6개 부처 26개법령에서 KOLAS 공인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성적서 국제상호인정을 통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사례로서, 휴대폰 수출업체가 성적서 국제통용으로 연간 138억 원 해외유출 시험비용을 절감하였다.

【 G-20 국가의 시험인증 MRA 가입 현황 】

구분	국가	APLAC-MRA 가입	ILAC-MRA 가입
G7	미국	○	○
	일본	○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캐나다	○	○
	이탈리아		○
아시아	한국	○	○
	중국	○	○
	인도	○	○
	인도네시아	○	○
중남미	아르헨티나		○
	브라질		○
	멕시코	○	○
유럽 등	러시아		○
	터키		○
	호주	○	○
	EU의장국		개별국 별 가입
아프리카, 중동	남아공		○
	사우디아라비아		○

